지상백고좌

조계종 전 포교원장 **혜총 대종사**

“문수보살 지혜는 ‘계율’서 나온다”



혜총 대종사는… 1945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스님은 보경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양산 통도사에 출가한 뒤 대율사인 자운 스님을 40여 년 동안 지극 정성으로 시봉하였다. 1956년 통도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3년 범어사에서 동산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 범어사 승가대학,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한불교신문〉 사장으로서 문서포교의 일익을 담당했으며,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으로서 어린이 포교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불국토이사장으로 복지활동에도 매진했다.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동국대 석림동문회장, 조계종포교원장, 대각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조계종 종정 표창장, 포교대상 공로상, 국민훈장 동백장,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등을 수상했다.

6월 25일 조계사에서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대종사를 친견했다. 가사 장삼을 수하고 대웅전에 들어간 혜총 스님은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린 뒤 필자를 조계사 인근의 전통찻집으로 안내했다.

온화한 웃음으로 맞아주시는 까닭에 혜총 스님을 뵙자마자 “인자하면 뜻에 혼란이 없나니 자비가 제일가는 행이다.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면 그 복은 한량없으리라”라는 〈법구경〉 구절을 떠올렸다.

‘광명진언’을 암송하는 이유는

혜총 스님은 조계사 대웅전에서도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기 전에 ‘광명진언(光明眞言)’을 염송했다. 스님은 법문에 앞서 항상 광명진언을 암송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필자가 그 이유를 묻자 혜총 스님은 자신의 출가인연에 대해 털어놨다.

“제가 출가하지 않으면 단명할 팔자라는 말을 듣고서 어머니는 저를 양산 통도사에 데리고 갔습니다. 사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거름이 지고 있었습니다. 자운 스님은 어린 제게 적멸보궁에 가서 3000배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따지듯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3000배를 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자운 스님께서 인자한 표정을 지으면서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업이 있다. 절을 올리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란다. 오늘 네가 3000배를 하면 나중에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운 스님이 시키는 대로 적멸보궁에 가서 3000배를 올렸습니다. 자운 스님은 미리 준비한 마니가사(摩尼袈裟:조수가 없이 하나로 된 가사)를 제게 건넨 뒤 사미계와 보살계를 내려주었습니다. 당시 자운 스님이 제게 강조하신 것이 바로 광명진언(光明眞言), 발일체업장근본득생정토다라니(拔一切業障根本得生淨土陀羅尼), 아미타불종자진언(阿彌陀佛種子眞言)을 독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혜총 스님은 광명진언의 공덕에 대해 “비로자나불의 광명이 비추면 마음이 절로 밝아진다”며 “살아 있는 사람들을 성불의 길로 인도하고, 망자들을 극락왕생의 길로 인도하는 진언”이라고 설명했다.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 타야 훔’이라는 광명진언에서 ‘바이로차나(Vairocana)’는 비로자나불을 의미한다. 광명진언의 영험에 대해 신라의 원효 스님은 “광명진언을 몇 차례 듣기만 해도 모든 죄업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사료에 따르면 원효 스님은 그릇에 흙을 담아놓고 광명진언을 108번 외우는 방식으로 영가들을 천도했다고 한다.

‘발일체업장근본득생정토다라니’에 대해 스님은 “모든 업을 소멸하는 것이 곧 극락세계에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혜총 스님은 ‘아미타불종자진언’에 대해서는 “아미타부처님께서 법장 비구로 계실 때 48가지 원을 세우셨다. 48가지 원 중에 ‘아미타불을 열 번만 불러도 업장이 소멸돼 이생에 있으면서 극락의 복을 받고 죽어서도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서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혜총 스님에 따르면 자운 스님께서 평생 동안 수행한 진언이 ‘아미타불종자’ 진언이었다고 한다.

지계,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법
계율 지켜야 비로소 성불 가능해
악업 짓는 순간 세상은 오탁악세

자운 스님 “광명진언 독송” 가르침
출가 후 70여 년 동안 지키며 살아
“비로자나 광명 비추니 마음 밝아져”

“염불수행자는 마음이 청정해야 합니다.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자비심, 희사심, 지계심, 인욕심, 겸허심, 평등심, 일체심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탐·진·치 삼독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일생에 지은 선악의 업만 남게 됩니다. 나쁜 업을 지었으면 악도(惡道)로 가고, 착한 업을 지었으면 선도(善道)로 가고, 염불을 하는 업을 지었으면 극락세계에 가는 것입니다. 오계 내지는 십계를 받아서 지키는 가운데 극락왕생을 발원해야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불하는 사람은 부모님, 나아가서는 조상님께 세간의 효와 출세간의 효를 동시에 행해야 합니다. 세간의 효는 부모님을 정성스럽게 봉양하는 것이고, 출세간의 효는 부모에게 염불을 권하여 정토에 왕생케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셨다시피 이 세상은 무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임종게를 통해서 법에 의지하고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세월이 쏜 화살처럼 빠르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용맹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혜총 스님은 자운 스님으로부터 사미계와 보살계를 받으면서 속으로 ‘내가 이 스님을 40년 동안 시봉하리라’라고 다짐했고, 실제로 혜총 스님은 출가한 이튿날 다짐한 대로 40여 년 동안 자운 스님을 모셨다. 오랜 세월 자운 스님을 모시는 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혜총 스님은 “내가 자운 스님을 모신 게 아니라 자운 스님이 나를 모셨다”고 회고했다.

계율 지키는 것이 佛法 실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대율사인 자운 스님에게 배운 까닭에 혜총 스님은 불자의 첫째 덕목으로 계율을 지킬 것을 꼽았다.

“계율을 지키며 사는 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계(持戒)는 ‘계율을 지키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계율을 지킬 때 비로소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신분이 아니라 행동에 따라 귀천이 나눠진다’고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행동’은 다름 아닌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순간 이 세상은 오탁악세(五濁惡世)가 되고, 역으로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순간 이 세상은 처염상정(處染常淨)이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 혜총 스님은 중국의 오대산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오대산의 현통사(显通寺)와 영축총림 통도사(通度寺)의 통(通) 자가 같다는 사실이었다. 그 사실을 알자 스님은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 율사의 행장이 떠올랐다. 자장 율사는 문수보살의 주석처인 오대산(五臺山)에 머물렀다.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현신을 만나 석가모니가 입던 가사 한 벌과 바리때 하나, 부처님의 정수리뼈와 치아사리를 건네받았다. 선덕여왕의 요청으로 귀국한 자장 율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 바로 통도사였다.

“저는 현통사와 통도사의 통(通)자의 의미에 대해서 숙고하지 않을 수 없었죠. 무엇이 통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마도 문수보살의 지혜가 통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수보살의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계율에서 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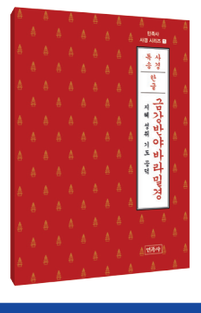
13면에 계속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